

공동체 소식

**연중 제 16주일**



지혜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아버지, 저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 언제나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섬기게 하소서.



7월 기도지향

- 박재천(알베르토), 박계숙(헬레나) 가정
- Michael Gorman, 한교숙(헬레나)가정

주간 전례

- 7/22(월)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기념일
- 7/25(목) 성 야고보 사도 축일
- 7/26(금)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

썰 기도 모임

- 일시 : 화요일 오후 7시 미사 후 /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회관
- '묵주기도의 모후'와 '평화의 모후'가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일치하는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언제나 지 환영합니다.

초청 국악공연

- 일시 : 7/30(화) 오후 7:00 ~9:00
- 장소 : Emmanuel Baptist Church  
10100 Ma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광복절 기념 소프트볼 대회

- 일시 : 8/10(토) 오전 9시
- 장소 : Heritage Park Softball Complex

기타

-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 정성된 마음으로 주일미사에 꼭 참여합니다.
- 한교숙 헬레나 자매님의 장례미사가 7/14(일) 오후 3시에 거행되었습니다. 장례 일정동안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7/2(토) 오후 6시, 히스페닉 공동체와 친교 미사 및 음식 나눔에 함께 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울	성 체	마 침
2	512	504/501	461

주일미사 복사

금주	안지영(카타리나), 고평원(프란치스코)
차주	안광민(야고보), 이원준(요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안 젤 라)	정수한(베 드 로) 김주연(세실리아)
차주	김수연(율리안나)	차호섭(요 셉) 차서은(세라피나)

애찬 봉사자

금주	박혜정, 지은경, 윤유나, 김재은, 김경들
차주	김시연, 조경희, 이대숙, 김말자, 문정윤

헌금 봉사자

금주	문석찬(요셉), 최은미(아네스)
차주	김시연(엘리사벳), 백문주(엘리사벳)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7/07	85명	360불	770불
07/14	67명	349불	550불



연중 제16주일  
농민 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르코린 4.18-

2013년 7월 21일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회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발치에 앉아 당신의 말씀을 귀담아듣는 마리아에게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염려와 걱정을 뒤로한 채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좋은 몫이 온전히 구원의 열매로 성장하도록 주님의 뜻을 실천해야겠습니다. 또한 농민 주일로 지내는 오늘, 농민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마음 모아 청합니다.

### 성화해설

마리아와 마르타 집에서의 그리스도  
(빈센조 캄피, 년도 미상, 캔버스에 유화, 이탈리아 모테나의 에스텐세 미술관)

빈센조 캄피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마리아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온갖 음식 재료들을 다듬기에 분주한 마르타의 모습을 매우 과장되게 묘사합니다. 이런 마르타의 분주한 모습과 많은 음식 재료들은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재발견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의 문」 7항 참조)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창세 18,1-10 < 나라,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



주님 당신 장막에 묵을 이 누구오리까

- 허물 없이 살아가며 의를 하는 이 마음속에 진리를 품은 이 제 혀로 하리질 아니하는 사람이외다. ◎
- 벗에게 해로운 일 아니하는 이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이 악한 자를 눈 아래 알아 보아도 주님을 섬기는 이면 존경하는 그 사람이외다. ◎
- 길미를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는 이 무죄한 이 다칠세라 뇌물 받지 않는 이 이같이 하는 사람은 쓰러질 리 없으오리다. ◎

제 2 독서 : 골로 1,24-28 < 과거의 모든 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복음 : 루카 10,38-42

<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

# 세 마

##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장마 뒤의 강렬한 햇볕에 정원의 나무들이 생기를 잃었습니다. 때문일까요?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쉬던 아브라함의 노곤함이 아주 생생히 느껴집니다. 온 사위가 숨을 죽이듯 적막한 중동의 한낮, 손도 달짝하기 귀찮을 그 시간에 길을 가는 길손을 “달려나가” 맞아들였다는 구절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 지닌 후덕한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라 싶습니다.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에서 쉴 자리를 마련하여 식사 시중을 들고 있는 백살 노인 아브라함의 코 끝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을 것도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하루 주님의 일정을 들려줍니다. 파견하셨던 “일흔 두 제자”들의 성과 보고를 듣고(10,17) 이어서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10,25)라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을 하셨으며 바로 그날에 마르타의 초대를 받아 방문을 하셨으니 무척이나 뻑뻑한 일정을 보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마르타의 집에는 자그마치 ‘일흔 명’이 넘는 손님이 들이닥쳤던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마르타가 얼마나 동분서주했을지,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마르타의 모습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그 바쁜 와중에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킨 동생이라니... 당장 불호령을 들어도 마땅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조심스레 다가 “저를 도와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라는 마르타의 당부를 거절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마르타가 참말로 민망하고 난감했을 듯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본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주한 마르타의 모습에 빗대어 인간의 선행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일깨우십니다.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속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르십니다. 세상에는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자기과시나 자기만족을 위한 것일 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점을 각성시키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마태 6,2)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제야 그날 마리아가 만사를 제치고 주님 말씀에 주목한 것을 칭찬하신 이유가 살피집니다.

마리아는 무엇보다 주님 의향을 소중히 살피려 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선행을 더 잘하기 위한 방도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행이 당신의 뜻에 근거할 때 하늘에서 ‘채권증서’가 작성된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이”(잠언 19,17)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독서에서는 길 가는 나그네에게마저도 최고의 정성과 최선을 쏟아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진심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주님의 고백을 캡니다. 그날 아브라함을 찾았을 때, 막강한 하늘군대의 호위를 받는 천군천사를 대동한 신비한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환대해 준 아브라함의 ‘사랑’에 감동하셨던 것이라 해야합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히브 13,2)라며 두고두고 자랑을 하시는지... 큰 목상거리를 건집니다.

솔직히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족족 송아지를 잡아 대접한다면 그 살림이 남아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서는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내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실 뿐입니다. 언제나 세상의 경제논리를 거부하고 세상의 손익공식과 확연히 다른 생명의 셈법을 익히라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멍텅구리 셈법’에 익숙하라 명하십니다.

그날 마리아는 주님의 지혜로써 가득했을 것입니다. 차오른 기쁨과 감사로써 마침내 언니 마르타까지도 덩달아 신이 나게 했으리라 믿어집니다. 쪼로로 달려가 “언니는 좀 쉬어요”라며... “내가 다 할게”라며... 주님 일행의 식사를 바지런히 준비했을 것이라 해야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사랑을 전파시키지 않을 수가 없으니, 틀림없습니다. 그 약자지꼴했을, 시끌벅적했을 주님 모신 기쁨이 우리의 것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 부산교구 장재봉 신부 -



# 마중물

## 희망의 온도

음식에는 종류에 따라 각자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맛은 섭씨 13도 일 때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깊은 우물의 물이 시원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 역시 그 온도가 13도에서 15도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가장 맛이 없는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체온(37도)을 중심으로 하는 온도일 때 가장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커피의 온도는 63도에서 64도가 될 때 가장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장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온도는 몇도 일까요? 풍성한 물질과 좋은 환경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고난” 을 받을 때 입니다. 고난 때문에 인간은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 평안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안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던 사람이 좀 살만하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양어선을 타고 멀리 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고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갖고 오는 방법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고급스러운 배를 만들고 먹을 것을 넉넉히 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닙니다. 고기들이 있는 곳에 메기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메기란 놈은 다른 고기를 잡아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고기들은 잡혀먹지 않으려고 이리피하고 저리피하고 긴장의 연속가운데 죽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기를 살리는 방법은 좋은 환경도 풍성한 먹거리도 아닌 바로 “고난” 그것이었습니다. 하느님도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은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온도입니다. 고난은 삶의 희망입니다. 고난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느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 ‘신앙의 해’ 교육자료

## 제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 45. 하느님께서서는 무엇 때문에 당신 아들을 넘겨주셨습니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아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로써, 당신의 계획이 우리의 어떤 공로보다도 앞서 존재하는 관대한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1요한 4,10).

이 사랑은 아무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서는 잃었던 양 비유의 결론을 통해 상기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마태 18,14).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마태 20,28)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이들”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한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당신을 내어 주시는 구세주 오직 한 분과 인류 전체를 대비시킵니다. 사도들의 뒤를 이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고, 전에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